

전주시, 에코시티 2단계 개발사업 속도

2023년 10월까지 도도마을 38가구 이주 지원·백석호수공원 조성·생태도로 설치·기반시설 구축 등 본격 추진

전주 옛 항공대대 부지(송천·전미동)에 대한 에코시티 2단계 개발사업이 본격화된다.

에코시티 2단계 개발사업에는 백석호수공원을 개발하는 사업이 포함돼 에코시티 주민들의 정주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는 항공대대의 도도동 이전에 따라 송천동2가 및 전미동 일원에서 진행되는 에코시티 2단계 개발사업을 오는 2023년 10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에코시티 2단계 개발사업은 지난 2019년 1월 항공대대가 도도동 이전과 함께 본격화될 예정이었으나 인접 지자체의 민원 해결 등으로 미뤄져왔다. 그러다 지난달 시가 국방부로부터 공동주택 터와 이주민 택지 등 전체 면적의 85% 부지를 먼저 넘겨받기로 합의하면서 2단계 개발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우선 시는 항공대대 이전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도도마을 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백석호수공원 조감도.

내년 9월까지 38가구의 이주자 택지를 조성해 주민들의 이주를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또 백석호수공원(5만8680㎡)을 테마가 있는 힐링공간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현재 민간사업자와 협의회 백석호수공원 등 사업구역공원에 대한 조성계획(변경) 용역을 추진 중으로, 총사업비 90억 원을 들여 노을테라스, 수변데크, 밤나무 숲길 및 숲속

산책로, 수변역새길, 연꽃 갤러리 등으로 꾸민다는 계획이다. 백석저수지의 경우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살리면서 특색 있는 경관을 연출하는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다.

특히 시는 백석저수지와 세병호, 화정저수지 수생태계를 연결하는 5km 길이 생태도로(도보 2시간 소요)를 설치해 주민들에게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기로 했다. 이밖에 에코시티 2단계 개발사업으로 공동주택 2곳이 건립되며,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기반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박영봉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2단계 사업 추진 시 기존 양호한 자연환경을 보전·활용한 도시 숲을 만드는 데 힘써 '천안그루 정원도시'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주민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한 기반시설을 지속 정비하는 등 정주여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전주시, 새마을 120가구에 1000만원 상당 식품키트 후원

생활여건 개선 사업이 펼쳐지고 있는 새마을을 곳곳에서 주민들을 위한 돌봄사업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전주시는 16일 남노송동, 진북동 도토리골, 교동 송암마을 등 새마을을 내 120가구에 1000만 원 상당의 식품키트를 전달했다.

식품키트는 전주연탄은행에서 후원한 라면과 비누, 모약로타리클립에서 기탁한 백미(10kg) 5포, 엠에스건설이 보내준 한과, 곰탕 등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도토리골 새마을에서는 진북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 가구에 주택 청소와 소독이 지원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국토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의 협약으로 추진되는 '민관협력형 주민돌봄사업'에 선정돼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으며, 남노송동 새마을에서도 맞춤형 돌봄 사업이 확대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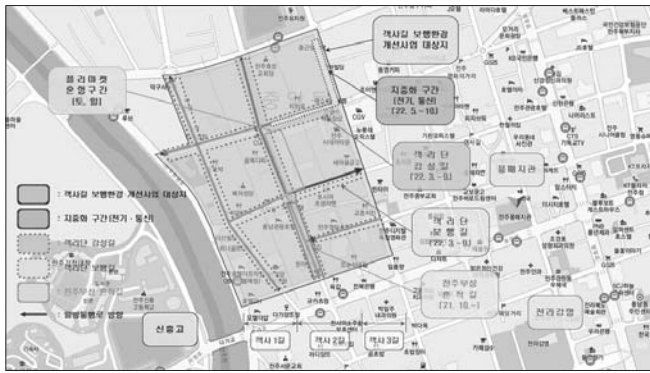
/김윤상 기자

객사길 보행환경 개선 본격화

전주시, 내달 개선사업 착공 내년 10월 마무리 예정

전주 객사길을 조선시대 전주부성 흔적을 느끼며 걸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이 본격화되어 온다.

시는 객사길을 테마별 특화거리로 조성하는 객사길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다음 달 착공한다고 16일 밝혔다.



객사길 특화거리 조성사업 위치도.

고사동 옥토주차장 인근 전주객사 1·2·3길 1.7km 구간에서 펼쳐지는 이 사업은 차도와 인도를 구분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조선시대 전주부성 흔적길 ▲객사단 감성길 ▲객사단 보행길 등 3가지 테마별 특화거리로 만드는 게 핵심이다.

전주부성 흔적길의 경우 전주부성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살리기 위해 풍남문 성벽 패턴의 석재로 포장되고, 차도는 석재, 보도는 블록으로 포장해 성벽 내·외길이 구분된다. 객사단 감성길은 화분이 설치된 정원거리로, 객사단 보행길은 보행자가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거리로 탈바꿈된다. 또 객사길을 주로 이용하는 청년들의 취향에 맞춰 사전에 선정된 지역 청년예술가들의 예술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시는 현재 진행 중인 우·오수 분리 사업이 완료되는 구간부터 블록 단위로 공사를 추진해 공사에 따른 통행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전주객사2길은 다음 달부터, 전주객사1·3길은 내년 봄 공사에 들어가 내년 10월 사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김윤상 기자

전북대병원, 추석 연휴 비상진료 대책 마련·주차장 무료 개방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이

추석 연휴기간 도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고, 도민 편의를 위해 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연휴기간 동안

응급환자 및 대량 환자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당직근무 의사 지정운영과 함께 응급상황에 대비해 의료진간 비상연락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21일 오전 8시부터 22일 오전 8

시까지 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

이와 함께 연휴기간 동안 무분별한 병문안으로 인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상주 보호자 1인을 제외하고 병문안을 전면 제한한다.

/김윤상 기자

전주·익산 연계 여행상품 출시

첫째 날 익산·둘째 날 전주서 보내는 1박 2일 여행

익산 미륵사지 미디어 아트쇼를 감상하고 다음 날 전주 한옥마을을 둘러볼 수 있는 여행상품이 출시됐다.

전주시는 코로나19로 증가한 국내 관광수요에 대응하고자 익산시와 연계한 여행상품인 '2021 mymy travel 시즌2 익산·전주'를 판매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2021 mymy travel 시즌2 익산·전주'는 첫째 날은 익산에서, 둘째 날은 전주에서 보내는 1박 2일 여행상품으로, 다음 달 2일까지 한정해 운영된다.

전주시의 경우 한옥마을 해설사 투어와 자유여행을 통해 한옥마을의 맛과 멋을 깊이 알 수 있도록 기획했으며, 전주수목원과 팔복예술공장 등도 코스에 포함돼 전주 관광의 외연이 확장될 수 있도록 했다. 익산에서는 나비위 성당을 시작으로 유명 드라마 촬영지를 둘러보는 일정과 함께 야간에 미륵사지 미디어 아트쇼를 관람할 수 있도록 짜여졌다. 또 푸드트럭과 인문학 콘서트 등을 즐기는 시간도 있다.

시는 버스를 이용한 단체여행



익산 나비위 성당 전경.

(My bus) 외에도 자차를 이용한 개별자유여행(My car)을 마련해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했다. 버스를 이용한 단체여행의 경우 좌석 수의 50%만 탑승하는 등 거리두기 유지에 힘쓰고 있다.

이 여행상품은 지난 1일 선을 보인 이후 티몬(TMON)과 쿠팡(COUPANG) 등을 통해 높은 예약률을 보이고 있다. 2주간 운영 결과 입소문 등을 통해 첫날보다 2배 이상 참가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상기자

전주한옥마을서 안심여행 캠페인 전개

시, 18~22일까지 안심관광지 10선 소개·이벤트 등 진행

전주시는 추석 연휴기간인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안심여행 캠페인을 벌인다.

안심여행 캠페인에서 시는 자체적으로 선정한 안심관광지 10선과 테라스가 있는 맛집, 코로나19 예방 여행가이드 등을 홍보하고, SNS 이벤트도 연다.

안심관광지 10선으로는 ▲전주한옥마을 ▲자만벽화마을 ▲전라감영 ▲남부시장 청년몰 ▲전주동물원 ▲팔복예술공장 ▲전주수목원 ▲덕진공원 ▲기지제 수변공원 ▲문화루(전북대) 등 밀폐공간이 아닌 야외에서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관광지 위주로 소개된다.

시는 또 안심서약인증 이벤트도 준비했다. 한옥마을 관광안내소에 비치됐거나 캠페인을 통해 수령한 서약증을 활용해 안심여행 인증사진을 촬영한 뒤 개인 인스타그램에 #관광거점도시전주 #안심관광 #전주 등의 태그와 함께 올리면 모바일 커피 쿠폰



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한옥마을 내에 방역수칙 준수를 독려하는 방송을 송출하는 한편 관광안내소 5곳의 방역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김윤상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